

<예시문>

노무현 대통령께

에바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0일 평택에 있는 에바다 학교의 박미애 학생이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편지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에바다 농아원 사태는 7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폭력을 일삼는 옛날 재단의 사람들에 의해 수업을 받지 못하는 농아원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범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7년째 계속되어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에바다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각 장애아들이 그들이 폭력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채 1년 6개월 이상 농아원과 학교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세력들을 경찰력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청각장애아들이 맘놓고 농아원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평택시와 경찰이 불법적인 옛날 재단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불법상태가 지속되는 일, 이것은 불의입니다. 에바다학교의 박미애 학생이 바라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대통령님의 의지로 보여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만 하고, 결국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 그래서 더욱 노무현 대통령 당신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불의가 발 딛을 수 없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에바다학교의 청각장애아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에바다 문제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학생들의 염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3. 5. .

○○○ 드림.

노무현 대통령께 편지 한 통씩 쓴다면
에바다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며

박래군 기자

저는 지난 4월 12일, <오마이뉴스>에 에바다 학교 박미애 학생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대통령 아저씨, 에바다 해결해 주세요” 기사 참조). 그가 노무현 대통령께 보냈던 편지를 소개한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박미애 학생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편지 답장은 못 받더라도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관심 갖고 나섰다는 얘기도, 어떤 지 시도 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에바다 학교의 박미애 학생은 얼마나 간절하게, 또 힘들게 쓴 편지인데, 그에 호소는 아직은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아직 답장 받지 못한 박미애 학생

그런 중에 다시 에바다 학교의 학생들 여섯이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일요일이었지요. 미애와 같이 해아래집에서 생활하는 세 명의 여학생들은 교회를 다녀오다가 오산에 불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 곳에서 학교 졸업한 선배인 최 아무개에게 폭행을 당했고, 최 아무개는 여학생 중 1명의 핸드폰으로 최근에 농아원에서 해아래집으로 옮겨와 생활하는 남자 아이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불러나온 아이들 셋이 다시 최 아무개라는 선배에게 폭행을 당하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해아래집 선배들에 의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진치 3주, 다른 1명은 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2주 전인 4월 13일, 이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최근에 농아원에서 해아래집으로 옮겨와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을 마찬가지로 농아원에서 생활하는 졸업생 2명이 폭행하고, 농아원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그 학생은 밤중에 농아원을 탈출하였다가 혼자 3시간 넘게 이모집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폭력사태가 농아원에서 생활하는 학교 선배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폭력 사태는 다른 학교에서는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에바다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폭력이 사태가 일어나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에바다 학생들 또 폭행 당해

지난번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이 막혀 있기 때문이고,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다시 교사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분명 법원에서는 현재 농아원을 근거지로 농아원과 학교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들은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이사들과 시설장들이 농아원과 학교에 자유로이 들어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아원은 불법세력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들은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농아원에 기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취업도 막으면서까지 졸업생들을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농아원에는 이

미 이사회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이 후배 졸업생과 농아원생들을 통제하면서 불법, 무법지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농아원생들은 선배들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아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싶어도 그들을 가로막는 해고된 직원들과 졸업생 때문에 수업을 받으러 통학버스를 타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는 겁니까?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는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마구 들어가 노동자들을 연행했던 경찰은 어찌된 일인지 에바다에서는 중립만을 강조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각장애아들이 생활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농아원이 불버과 폭력의 온상이 되었고, 한 울타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불법세력을 퇴거해달라는 이사회와 학교장, 농아원장의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농아원생들은 이제는 수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강쾌처럼 난폭해져만 갑니다.

휴지조각이 돼버린 법원의 결정문

지난번 박미애 학생은 대통령께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관심만 가져주셔도 저희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의가 이기게 해 주세요. 바르게 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끝내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걸 믿고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폭행을 휘두르던 농아원 친구들이나 구재단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해 주세요.”

위에서 보았듯이 합법적인 이사회의 불법세력에 대한 퇴거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틀릴 리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에바다와 같은 작은 시설에서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정의가 이기게 해 달라”는 한 청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우리는, 그리고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에바다복지회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7년째 끌어온 에바다 이대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서 에바다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들이 편지 한 통씩만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바다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씩

앞에서 에바다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에바다 이사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이사회는 지난 2001년 8월에 이른바 민주적 인사진으로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변 소속으로 각종 인권운동에 함께 해왔던 김칠준, 이찬진 변호사와 진보적인 학자로 한신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는 남구현 교수, 민주노동당 활동과 미군기지 철수 운동을 전개해온 김용한 박사,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로 많이 알려진 박경석 교장, 송탄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우철영 목사 등이 이사로 있고, 거기에 지역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활동을 하는 윤귀성 치과의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석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물론 이사회에는 옛날 재단 이사들도 4명이 있지만, 이들은 거의 이사회 회의에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에바다 이사회는 민주적 인사진이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바다이사회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자리가 탐나서 시설의 운영권이 탐나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적 이사들 속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에바다가 정상화되면 빨리 이사 자리 내놓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는 이사들인지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마다않고 참여는 하고 있지만, 에바다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운영만 된다면 미련 없이 이사 자리를 내놓을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들은 그동안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해오다 시설비리의 대표적인 에바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사회에 참여했고, 지금껏 폭행을 당하면서도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인권활동과 그들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는 폭력사태에 희생되어온 에바다의 학생들이 맘 놓고 학교에 들어가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시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학교든 농아원이든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상식에 속하는 정의조차 에바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7년째 정의가 사라지고, 법이 멈춰버린 농아원 정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에바다 학생들의 염원을 저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편지 쓰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달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과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 앞에서 촛불을 밝혔던 그 양심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의 죽음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순수함으로 이제 에바다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운동에 힘을 보태주시시오.

더 이상 사회복지라는 미명 하에 시설장이 시설 재산을 사유화하고, 온갖 비리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시설장과 유착된 공무원들이 불법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애가 바라는 “정의가 이긴다”는 걸 꼭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관심만 가지면 될 것이라는 미애한테 대통령이 에바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답장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책상 위에 전국에서 날아온 양심의 편지가 쌓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상식을 믿습니다.

2003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 연락담당 : 이승헌(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사무국장)
- 연락처 : 전화 및 전송 031-654-2750 / 휴대폰 011-9615-727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제 목: '에바다 학교' 정상 수업 실시에 대한 취재 및 보도 협조의 건

발신일: 2003. 3. 26.

1.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6년 11월말부터 시작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비리시설의 대표적인 사례인 에바다 사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 주었습니다.
3. 최근 에바다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최씨 일가 구 비리재단의 힘은 매우 약해졌으며, 2001년 10월말부터 학교와 농아원을 최씨 일가의 사주에 의해 불법을 점거 하였던 농아원생들도 서서히 농아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바다 사태는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에바다 학교(교장 김지원)에서 수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농아원생들이 최씨 일가의 사주를 받아 학교 정문을 통제하면서 일부 교사들의 출입을 저지할 것이고,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교사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되풀이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는 결단을 내려 3월 27일부터 당분간 학교 수업을 복지회 내 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회로서는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5.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새로운 관장(김민수)이 부임한 이래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그 덕분에 학교 수업을 복지관으로 옮겨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사회과와 보건복지부는 학교 수업은 복지관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관장에서 지원금 중단 등의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현 복지관의 남은 공간을 시설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6. 에바다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정문이 막힌 1년여 동안, 그리고 사태가 발생한 6년여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바다 복지회는 이들 청각장애아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바다 사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셨던 귀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문제시설인 에바다의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 현재 에바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대표이사 윤귀성

보 / 도 / 자 / 료

■ 주 요 내 용

- 에바다 관련 상황 개괄
- 개학 맞는 에바다 학교
-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

사회복지 법인 에바다 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

- 연락담당 : 이승현(사회복지 법인 에바다 복지회 사무국장)
- 연락처 : 전화 및 전송 031-654-2750 / 휴대폰 011-9615-7276

● 에바다 관련 상황 개괄

1. 현 황

(1) 시설 현황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에는 학교(초등, 중등, 고등 과정), 농아원, 종합복지관 등 3개의 시설이 있음.

(2) 학교의 파행적 상황

2001. 10. 26 ~ 2003. 3. 10. 현재까지 합법적인 교장, 교감, 절반 가량의 교사, 행정 실장 등이 구재단측으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하여 14개월 이상을 학교에 출근조차 하지 못 하고 있음.

1) 2001. 10. 26부터 구 재단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농아원생들이 교장, 교감, 권오일 교사의 학교 출근을 강제로 막고 교문 밖으로 끌어내었음.

2) 2001. 12. 22부터 위 3인 외에 비리에 맞서온 교사들(김선옥, 박창숙, 박홍규, 신연실, 안명필)을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

3) 2002. 3. 5. 개학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문 폐쇄와 폭력이 이어져 왔음. 이에 부득불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한 후 교장, 교감, 교사(6명)들이 ‘해야래집’ (구 재단 측의 인권침해와 재단 비리에 맞서 농성을 주도해온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울려 사는 청각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수업을 하고 있음.

4) 2003. 3.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새 학년을 맞아 에바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12명의 신입생에 대해 배치를 보류한 상태임. 이에 학교는 부득이 방학을 실시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신입생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

(3) 농아원의 파행적 상황

2002. 5부터 새로운 원장이 합법적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아원생들은 구 재단 측 인사들에 의해 폭력을 자주 받고 불법적인 점거와 교문 폐쇄를 계속하고 있음.

(4) 법인 이사회의 상황

2001. 8. 14. 합법적인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었음.

(현 이사진은 에바다공대위에서 추천한 민주적이사 9명과 구재단측 4명)

1) 민주적 이사 측(9명)

- 대표이사 윤귀성(치과병원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사업국장, 인제대 의대 외래부교수)
- 이 사 김철준(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대표, 경기복지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 이 사 이찬진(변호사, 민변 사회복지위원, 법무법인 해람)
- 이 사 박경석(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 장애인 이동권연대 대표 등)
- 이 사 박래군(인권운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이 사 김용한(문학박사,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민주노동당 평택을지구당 위원장 등)
- 이 사 김홍목(전 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
- 이 사 우철영(목사, 송탄송북교회)
- 이 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구 재단 측(4명)

- 상임이사(임시이사) 최성호(목사, 구 재단 최실자의 친동생)
- 임시이사 이우복(목사, 구 재단 전 최실자 농아원장, 최성창 전 이사장과 오랜 친분 관계 유지)
- 임시이사 박경인(목사, 에바다 학교 동문회장을 자처)
- 임시이사 이계복(목사, 구 재단 최실자와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

유지)

※ 그러나 민주적 이사들은 합적인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등 교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 취임 이후 학교와 농아원에 단 한 차례도 출입할 수 없었고, 현재도 출입을 못하고 있음.

(5) 법원의 판결

2002. 2. 9.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새로운 이사진과 학교장, 원장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정상화를 위해 <출입방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구재단측의 법인시설 <출입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은 구 재단 측 인사인 최성창 전 이사장과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등이 농아원을 계속 출입하면서 농아들을 동원하여 계속 학교와 농아원 정문을 막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1) 김대중대통령의 4차례에 걸친 에바다 해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1) 1차 약속 : 1996. 12. 21. 한국농아인청장년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2) 2차 약속 : 1997. 12. 초순 대통령후보로 송탄지역 목회자들과 간담회에서

3) 3차 약속 : 1998. 5. 10. 제2차 국민과의 대화에서

4) 4차 약속 : 1998. 5. 말경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당시 장애인 단체 대표였던 김성재교수(현 문화관광부장관)의 에바다 해결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함.

※ 김대중 대통령의 에바다 해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장면(국민과의 대화)이 TV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되었음(MBC PD수첩 2차례, MBC 시사매거진 2580 2차례, MBC 미디어비평 1차례, KBS 9시뉴스 1차례, KBS 접속신세대 1차례, SBS 8시뉴스 집중취재 1차례, 기타 평화방송 등 케이블 TV 등에 수십 차례 방송).

(2) 농성사태 발생 이후에도 계속되는 비리

1) 2002. 6. 29. 학교 공금 7800여 만원 횡령 건

- 이 건은 현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 횡령혐의로 기소단계에 있음.

- 비리의 주범인 양봉애(전 행정실장, 구재단측 이사 최성호의 처, 2002. 2. 18.자로 해임)와 행정실 직원인 양봉말(양봉애의 동생, 사태초기 횡령사기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를 받은 바 있음)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양봉애는 현재 이 건으로 참고인 중지 상태임(몇 달째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 지만 농아원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

2) 양봉애에 대해서는 위 건 외에 수원지검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 중이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음.

3) 기타

96. 11. 27. 사태 이후 새로운 비리들이 감사원 특별감사, 두 차례의 국회 국정 감사, 시청감사 등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듯이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감사에서 외면한 건들도 많음).

(3) 농성사태 발생 이후 계속되는 폭행 건

1996. 11. 27 사태 발생 이후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찰관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폭력들도 허다함(주요 사건 몇 가지만 정리함)

1) 합법적 이사진과 교장, 원장 등에 대한 폭력

2002. 7. 법인 이사들과 교장, 원장 등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 안으로 들어갔으나 비리주범 구 재단 측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부터 쇠파이프를 이용한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그들은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태가 발생함.

2) 2002. 3. 16. 해아래집 야밤 습격사건

새벽 0시 45분 경 비리주범 구 재단 측의 사주를 받은 농아원생 10명이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해아래집의 출입문을 부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습격하여 온 방안을 피투성이로 만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음(MBC PD수첩 2002. 3. 22. 습격 상황 방영).

3) 2002. 2. 28. 권오일 교사와 법인사무국장 남정수에 대한 집단 폭행 건

비리주범 구 재단 측의 사주를 받은 농아원생 15명이 대낮에 동네 식당 앞에서 권오일 교사와 법인 사무국장 남정수에게 20여분간 집단 폭행을 가하였음. 권오일과 남정수는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중상을 입었음(MBC PD수첩 2002. 3. 15. 관련 건 방영).

4) 2002. 2. 28.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달관 신필호씨 폭행 건

2002. 2. 9.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달관 신필호씨가 법원의 가처분(비리주범 구 재단 측에 대한 출입금지, 출입방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공시하기 위해 에바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사주를 받은 원생들이 멍살을 잡고 끌어내고 공시한 판결문을 찢어 버렸음.

5)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폭행(당시 임신 9개월의 이수진 교사와 6개월의 김정임 교사에 대한 폭행으로 119에 의해 입원한 건 등)

6) 수업 중인 교사들에 대한 교실 감금 및 폭행, 똥오줌 뿌리기, 끓는 물을 여교사의 목덜미에 쏟아 붓기, 남녀 교사를 가리지 않고 수업시간

에 집단으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콘크리트 벽과 바닥에 쪼기 등 거의 매일 비슷한 일을 당함.

7) 기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폭력이 난무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력범들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이것이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옴.

(4) 농성사태 이후 계속되는 인권유린

비리주범들이 농아원생들에게 스승을 폭행하는 등 온갖 폭행을 하도록 사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손목에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협박을 가하였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음(농아원생의 진술을 비디오로 담겨 있으며 PD수첩 방영).

(5) 비리재단 최씨 일가(구 재단 측)의 비리내용

- 농아어린이 70여명 인신매매(미국으로 강제입양, 80년대 초반까지 자행)
- 사망실종 변사체 발견 5건
- 어린 여학생을 정신지체인과 강제결혼 시키고 몸종으로 부리다 도망간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으로 사망
- 국고 횡령
- 후원금·후원품 횡령
- 어린 농아학생들에게 새벽까지 재본 공장에서 강제노동 및 임금착취
- 유령직원 15명
-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수첩 2중 발급(이름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함)으로 국고 2중 지원 받아서 횡령
- 미국 시애틀 소재 에바다 후원 재단에서 보내는 후원금 전액 횡령(100억대가 넘는다는 말이 무성하지만 20년 이상 단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음)
- 기타 온갖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끝이 보이지 않음.

3. 최근 상황

(1) 법인 이사회

1) 민주 이사진

* 민주 이사진이 전체 이사회 의 과반수 이상을 점한 이후 에바다 복지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산하 시설중 하나인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관장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임관장 선임.

- 복지관 운영에 대해 법인 이사회 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후견 이사회 제 도입 검토 중

- 복지회 정상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원사업 추진 중.

* 민주 이사들이 각자 출원하여 후원사업을 위한 씨드머니 조성함.

- 한신대학교와 에바다 복지회간 ‘산학연 협동계약’ 추진 중.

- 작년(2002년) 8월 이후 복지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국고 환수조치되고 남은 법인 자산의 잔액(56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음.

2) 구 재단 측 이사(임시이사 4명)

- 박경인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조차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음.

- 이사회에 참석하는 박경인 이사는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남발하여 노골적으로 이사회 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법인의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 구 재단 측의 이사들은 시청의 직권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이므로 정이사가 9명으로 충원된 상황에서 임시이사를 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작년 8월13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해촉을 결의하고 평택시청에 임시이사 해촉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평택시청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1) 학교와 농아원

1)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구 재단 측 인사들의 배후 조종에 의해 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수업이 1년 4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학사 행정은 엉망이 되고 있음. 더욱이 경기도 교육청이 신입생 배정을 보류함에 따라 조기 방학에 들어 갔다 가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신입생이 배정되어 방학은 철회되었지만 구 재단 측 인사들의 지시에 의한 농아원생들의 불법 점거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교사들에 대한 폭행과 학교기물 파손 등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움. 아울러 교사들의 교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는 상태임.

2) 농아원생들이 만성적인 폭력 행동에 불감 증세를 보임

• 1997년 11월 27일의 농성 이후로 농아원생들이 구 재단 측 인사들에 의해 폭력에 동원되고도 사법당국이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자신들의 폭력 행위가 잘 못되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 상태를 보임. 이는 성장 중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가치관과 정서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3) 시청·교육청·경찰·검찰이 사태를 방조하고 있음

• 현재 에바다 상황은 이사회나 시설장 등의 선임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이 합법적인 이사들과 시설장들이 시설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임(구 재단 측이 현 이사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

• **평택시청은** 노골적으로 구 재단 측을 편들고 현 이사회를 부정하

고 현 이사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방해(법인 자산회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 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구 재단 측을 배려하는 행정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도 구 재단 측이나 현 이사회를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지 않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구 재단 측 전 이사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철회되었지만 신입생 배치 보류와 같은 조치는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폐쇄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그간의 술한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은 폭력 사태를 방치함으로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음. 또한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이나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 다시 비리가 발생하게 함. 특히 평택 경찰은 출입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불법 점거 세력의 퇴거와 시설 보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사회의 시설 출입 역시 가로 막았음.

(2) 장애인 종합 복지관

- 2002년 독선적인 전 관장이 교체되었고, 관장 직무대행을 세웠다가 최근 복지관 경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식 관장을 임명한 이후 점차 안정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개학 맞은 에바다 학교

(1) 개학하는 날 풍경

- 3월24일(월) 아침 9:00 7년째 에바다 학교의 정상화를 외치며 농성과 수업을 계속해온 해아래집은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모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로 뒤늦었지만 개학과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 개학과 입학식은 학교가 아닌 인근의 무봉산 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예정된 시간(오전9:30)이 다가오자 해아래집 아이들을 비롯해서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통학생)은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에서 얼싸안는 등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였다.

- 특히 이 날은 지금까지 농아원에서 생활하면서 구 재단 세력에 의해 폭력을 강요받던 아이들도 둘이나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 어쩔 수 없이 폭력에 가담했던 이 두 아이들은 해아래집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자 조금 어색한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한다면 곧 여느 아이들 못지 않게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두 아이를 제외하곤 농아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농아원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다.

- 예정보다 10분정도 늦은 오전 9:40경 입학식과 개학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학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은 이제 모두가 모여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정상화’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각자 방에 올라가 짐을 풀었으며, 오전 11:30경 쌍용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수련회 일정에 들어갔다.

(2) 개학과 입학이 늦어진 이유

- 에바다 학교의 개학과 입학이 늦어진 책임은 경기도와 평택 교육청에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 교육청은 지난 3월4일로 예정되어 있던 개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에바다 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치를 일방적으로 보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에바다 학교는 부득이 조기 방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었다.

-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 교육청의 일방적인 처사는 에바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고, 결국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 교육청은 신입생 배치 보류를 철회하게 되었다.

- 이번 신입생 배치 보류 이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지점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에바다 학교의 수업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현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 이사진과 구 재단측이 서로 대립하여 타협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 이와 같은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문제의식은 지난 11월 에바다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이후 지금까지 취해온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에서 증명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구 재단측의 폭력을 동원한 교사들에 대한 수업 방해와 민주 이사진과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운영진에 대한 학교 출입 및 업무방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 또한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 재단측의 정문봉쇄에 막혀 감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가 하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를 한다면서 에바다 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에바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폭력과 불법행위의 배후세력인 최성창을 참석시켜 현 이사들로 하여금 최성창과 협의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

- 이는 곧 온갖 폭력과 비리를 저질러온 이들에게 그들이 폭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이사들과 동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상 아니었다. 특히 지난 3월20일 현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의회 자리에서 초등교육을 맡고 있다는 송문용 장학사는 “교육청은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공직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의 에바다 문제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청의 태도를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에바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

(1) 이제 3월24일로 개학과 입학식을 화기에애하게 치루었고,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시작하였지만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 바로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공간의 마련이다. 불법세력이 아직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책임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만을 이유로 어린학생들만을 에바다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아이들을 불법세력의 손에 다시 맡기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이사진과 학교 운영진의 무책임한 책임회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안 : 경찰에 학교가 처해 있는 불법상태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여 이사진, 학교 운영진 및 교사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업무수행을 보장하며, 구재단측 인사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②안 : 1안이 불가능하다면 학교 외에 임시 공동 수업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함. 학교 외에 수업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간 폭력 사태에 동원되었던 농아원생들의 순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현재 학교를 출입한다 해도 불법세력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2) 이러한 요구는 만약 경기도 교육청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그리고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에바다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